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8월 27일(주일) 제1161호

2017년 여름사역 결산



전하고, 가르치고, 내 몸같이 섬기고

성인, 대청, 차세대 366개 팀 8,927명 ... 해외 아웃리치 증가세
차세대 여름캠프 참가자 10,058명, 사랑부 8팀 704명 참석
(학생 7,462명, 교사 2,596명)

2017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366개 팀 8,927명이 참석했다. 국내 179개 팀 5,424명, 해외 187개 팀 3,503명이었다.

해외 아웃리치 인원은 전년 대비 794명이 늘었다. 리브소나타 동경 대회와 일본 아웃리치에는 53팀 1,505명이 참가했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일본 다음으로 많이 간 국가는 남아시아(18팀, 322명), 동아시아(18팀, 292명), 남아시아(6팀, 179명) 등의 순이었다.

대륙별로는 동북아시아가 54%(78팀, 1,906

명)로 가장 많았고, 남아시아 36%(85팀, 1,270명), 아프리카 3%(6팀, 112명), 유라시아 2%(5팀 68명), 중앙아시아 2%(6팀, 59명), 미주 2%(3팀, 53명), 중동 1%(4팀, 35명) 순이었다.

국내 아웃리치는 경기도 26%(41팀, 1,427명)가 가장 많았고, 전라도 19%(32팀, 1,054명), 강원도 17%(29팀, 904), 충청도 15%(29팀, 808명), 경상도 12%(24팀, 635명), 서울과 인천 7%(13팀, 390명), 제주도 4%(11팀, 206명)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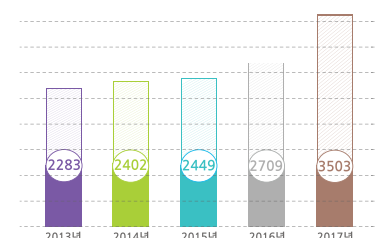
차세대 여름캠프도 뜨거웠다. 86팀 10,058명

(학생 7,462명, 교사 2,596명)이 참가했다. 캠프 참가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다. 서빙고, 양재, 강동, 부천, 인천 사랑부도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8팀 704명(학생 276명, 교사 및 봉사자 428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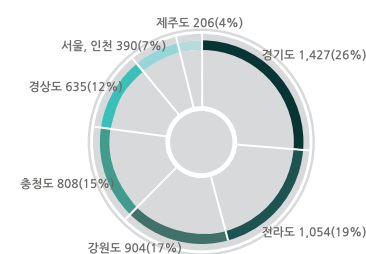
충북 음성 예방교회 박재영 목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보고 “한 분 한 분이 천사 같았다”고 극찬했다<박재영 목사 편지 13면>.

/ 김영선, 이소정 기자

최근 5년간 해외 아웃리치 인원 추이 (단위 : 명)



지역별 국내 아웃리치 (단위 : 명)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서명

9월 3일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실시

다음 주일(9월 3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서명' 운동을 실시한다.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온누리교회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미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25만 명(8월 23일 기준)을 넘어섰다. 매일 1만 명의 서명자가 개헌 반대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개인뿐

만 아니라 교회, 어린이집, 경로당, 병원 등 단체들도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홈페이지(www.hisland.org)에서도 서명을 할 수 있다.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다. 문의: 02-2671-2468

정재욱 목사 베트남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취임

정재욱 목사가 베트남 온누리교회 담당목사로 취임하고 김영철 목사가 이임했다. 지난 16일 베트남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이·취임예배에는 박종길 목사, 베트남 협력교회 목회자 및 남부총회 목회자, 선교사, 한인교회 협의회 목회자, 베트남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참석했다.

담당목사로 취임한 정재욱 목사는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겸손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면서 “앞으로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고 약속

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확대 당회

일시: 9월 2일(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제직회

일시: 9월 3일(주일) 2부 예배 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대상: 모든 제직

탐방 꼭 한 번 가봐야 할 한국의 기독교 유적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어라”

온갖 고난에도 신앙을 꽃 피운 신앙의 선배들



▲ 옥녀봉 정상, 느티나무 옆에 신사가 있었다.



▲ 신사부지로 강탈 당하고 불탄 강경침례교회 터.



▲ 6.25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강경성결교회.



▲ 한국 최초의 침례교 예배지.

한국에도 꼭 한번 가봐야 할 기독교 유적지가 많다. 가족, 공동체, 순 단위로 방문하면 좋은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신앙교육이 된다. 이번 주에 소개할 곳은 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충청남도 강경의 교회들이다. 그곳에 가면 신앙의 선배들이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강경제일감리교회, 강경침례교회, 강경성결교회, 병촌성결교회를 다녀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다”(신 32:7).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당시 고통이 어땠을까. 겪어보지 않고는 기늠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 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후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역사다. 충청남도 강경에 가면 일제의 폭압과 인민군의 총부리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다.

목숨 걸고 항거 ... 눈물겨운 나라사랑

지금의 충청남도 강경은 전국에서 가장 작은 읍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원산과 함께 전국 2대 포구로 꼽혔다. 쌀, 소금 등을 전국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했다. 내륙지방인데 젓갈이 특산물일 정도로 수많은 물자가 오갔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득난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실도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충청남도 강경은 수탈의 중심지였다.

일제는 1904년 부산에 이어 충청남도 강경에 있는 옥녀봉 정상에 신사를 지었다. 옥녀봉은 강경 일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언덕이다. 옥녀봉 꼭대기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 신사를 짓고 강경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켰다. 그때 지어진 신사는 해방 이후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한다. 지금은 신사의 흔적만 남아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신사가 있던 옥녀봉 근처에 교회가 있었다. 옥녀봉 공원 한쪽에 잘 복원된 초가집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인 ‘강경침례교회’ 터다. 포목장사를 하던 지병석 성도 내외가 1896년 2월 9일 파울링 선교사 부부, 아만다 선교사와 함께 옥녀봉 가옥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가 한국에서 드린 최초의 침례교 예배라고 한다. 그들이 옥녀봉에 교회를 세웠다. 한창 복음을 전

하고, 교회가 자리를 잡아갈 즈음 옥녀봉 정상에 신사가 세워졌다. 옥녀봉 아래에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주도한 강경성결교회가 있다. 강경성결교회는 토마스 선교사가 일본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받은 배상금으로 지은 교회다.

옥녀봉 인근에 있는 교회들은 일제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1910년 강제 합병 이후 일제는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신사로 가는 길목마다 교회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골치가 아팠을 것이다. 일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를 없애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강경은 항일정신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강경 일대에서만 만세운동이 10여 회 이상 일어났을 만큼 이 지역 사람들은 일제에 대한 저항이 강했다. 항일정신과 신앙으로 똘똘 뭉친 강경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3.1만세운동 같은 거센 항일운동이 또 일어날까 두려움을 느꼈다.

일제는 1925년 조선신궁 건축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신사참배 운동을 거행하려 했다. 이러한 일제의 계획에 조선의 언론과 교회, 학교들이 거세게 저항했는데 강경에서도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일어났다. 강경성결교회 김복희 교사와 학생 57명이 주도적으로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사와 학생들은 면직과 퇴학 처분을 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생각하면 주기철 목사를 떠올리는데 강경성결교회는 주기철 목사보다 약 20년 전에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했다. 학생들이 주를 이뤘다는 점도 의미가 남다르다. 강경성결교회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키는 정책 시행을 1930년대까지 보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일제는 1937년부터 기독교 학교를 폐교시키면서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당시 강경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했다.

1942년, 일제는 강경침례교회 목회자와 성도 23명을 압송했다. 담임목사는 옥에서 순교했고, 강경침례교회는 신사부지로 수탈당했다. 그렇게 일제의 손에 교회가 잿더미가 된 것도 모자라 1944년에는 침례교회 교단이 강제로 해체를 당했다. 강경성결교회 역시 1943년 문을 닫고, 교단을 해체 당했다.

회유와 탄압에도 “오직 믿음”

1945년 일제의 패망 이후 교회는 다시 힘을 냈다. 그런데 채 5년도 지나지 않아 고난이 또 찾아왔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인민군들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싫어했다.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에게 협조하지 않고, 기

교는 그들에게 똑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강경침례교회 5대 담임목사인 이종덕 목사는 인민군들의 회유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다. 교회를 지키려고 피난도 가지 않았다. 목사라는 신분도 숨기지 않았다. 인민위원회를 찾아가 전도할 정도로 신신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1950년 9월 28일 퇴각하던 인민군에게 끌려가던 청년 두 명을 도망치게 도와주고 순교했다.

강경성결교회는 6.25 한국전쟁 중에도 단 한번도 주일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교회에 포탄이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포탄이 터지지 않았다고 한다. 인민군이 목회자를 죽이려고 교회를 습격했는데 기도 중이던 목회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일화는 이 지역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인민군은 1950년 9월 27일과 28일 병촌성결교회에도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성도 66명을 뒷산으로 끌고 가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겠다”며 위협했다. 병촌성결교회 한 집사가 끝까지 인민군들에게 협조하지 않아서 보복을 한 것이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병촌성결교회 성도들은 손을 맞잡고 기도와 찬양을 반복했다. 당시 만삭이던 31세 정수일 집사는 “인민군은 패전 할 거니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다. 이날 성도 66명(학생 및 유아 31명)은 모두 순교했다. 그 66인을 기리는 순교기념탑과 순교기념관이 강경에 있다. 순교기념관 천장에는 66개의 조명이 빛나고 있다. 이외에도 성도 3명의 인피가 벗겨진 ‘이화교회’, 안순득 속장(순장 혹은 다락방장)이 총살당한 ‘강경중앙감리교회’ 등도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온갖 고난을 겪은 충청남도 강경 일대의 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이 후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하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어라.”

믿음이 연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충청남도 강경을 반드시 탐방하기를 바란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앙의 선배들은 선교사도, 목회자도 아니었다.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이었다. 총부리를 겨누는 인민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순교한 이는 부녀자였다.

강경제일감리교회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 34번길 6
문의: 041-745-0742

강경침례교회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7번길 10 (옥녀봉)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73번길 28-12
문의: 041-745-2398

강경성결교회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19번길 40-1 (옥녀봉)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73번길 8
문의: 041-745-6164

병촌성결교회
주소: 충남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475
문의: 041-732-6251



주일강단



이상준 목사

인생마다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울 왕이 불순종을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새 왕을 세우겠다는 에피소드입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어렵고 복잡했지만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녁제사에 이새와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이새는 자신의 일곱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10절).

사무엘은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새에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니까. 저는 아들들에 대한 애착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뉘앙스(Nuance)는 ‘어감(語感)’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행간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말의 어감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의미 이외에 느껴지는 섬세한 의미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뉘앙스입니다. 뉘앙스의 차이는 언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과 연주, 행동에서도 느껴집니다. 또한 뉘앙스는 인생에도 있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이새와 사무엘의 뉘앙스

이새에게는 아들들에 대한 자신감과 애착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저의 일곱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자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이제 정말 다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막내가 있기는 한데요”라고 대답합니다. 이새는 선지자가 아들이 더 있다고 문자적으로 대답하고, 꺼려하고, 주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막내는 데려오면 안 되는데”라는 뉘앙스를 보입니다. 이 집안에서는 차별이 당연지사로서 여겨지고 있는데 이새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알고 있습니다.

이새의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자식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가르치려하고 하나님마저 가르치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새의 영적상태였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어떤 뉘앙스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 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11절).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서 세우겠다는 사명자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아들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12절).

저녁식사가 한참 늦어지고 저 멀리 들녘에서 양들과 함께 있던 소년을 데려왔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는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니까. 등불에 비춰진 소년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발그레한 살결입니다. 얼굴이 태양에 그을린 것이 보였고, 둘째, 반짝이는 눈입니다. 반짝인다는 단어를 직역하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셋째,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토브’인데 영적인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을 때 그 ‘좋았다’가 토브입니다. 정말 좋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목동 소년이 선한 영혼과 좋은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었을까요.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목동 소년은 한마디 대사도 없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홀로 들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혀 외롭지 않다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울할 새도 없었고, 여유가 있으면서 늘 기뻐했습니다.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충만했습니다. 어린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자신 있게 섭니다. 그 긍정의 믿음이 어느 한낱 생김 것

이 아닙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뉘앙스를 풍기며 살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 비교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여호와와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13절).

사람의 뉘앙스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뉘앙스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들의 예배자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의 기준과 뉘앙스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신데렐라와 똑같습니다. 신데렐라의 언니들이 왕자님이 언제 한 번쯤 자신에게 와서 춤을 추자고 할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왕자는 우리 구두 한쪽을 벗어던지고 도망간 소녀를 찾아내서 왕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뉘앙스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말은 긍정형이지만 뉘앙스는 부정형일 때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정문이지만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뉘앙스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름뿔만 쳐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인생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그 영혼의 고백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삼상 16:7).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뉘앙스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기도자의 뉘앙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사울은 악인의 전형이고, 다윗은 선인의 전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노해서 나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팔이 잘못을 했어도 죽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광야의 훈련장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스스로 이탈해서 시굴락성에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밧세바라는 여인

을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교묘하게 죽였습니다. 흑자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했지만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데 성공했다면서 결과만 놓고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악한 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다윗도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뉘앙스와 사울의 인생의 뉘앙스를 다르게 보십니다. 다윗은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것이 드러나면 오히려 회개했습니다. 사울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드러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했습니다. 계속 버티면서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뉘앙스와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뉘앙스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뉘앙스는 본질에서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거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뻔뻔해진 자 세로 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뉘앙스는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 산데서 향해 나고 생선을 썬데서 비린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뉘앙스는 내면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 포장해도 보입니다. 어딘가는 냄새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장해도 내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종교적인 삶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어디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울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내면을 치유하며 살았습니다. 덮어두고 살지 마십시오. 뉘앙스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배신감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면을 치유해주셨고, 순전한 영혼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

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의 사람으로 세움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획

종교개혁 500주년,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서



▲ 아이슬레벤 시청 광장에 있는 루터 동상. 그 뒤로 루터가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한 성 안드레아스 교회가 보인다. 성경을 들고 있는 어느 도시의 루터 동상과 달리 이곳의 동상은 왼손엔 성경, 오른손엔 루터를 이단으로 파문한다는 교황의 교서를 구겨쥐고 있다.



▲ 체코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에 있는 얀 후스의 동상.

한 청년의 용기가 교회와 나라, 세상을 바꿨다

개신교 탄생, 독일어성경 번역, 독일 통일의 주춧돌
한국 교회도 루터의 개혁정신 이어받아 통일 사명 완수해야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이었다. 1517년 10월 31일 34살 청년 한 명이 진리와 믿음에 의거해 분연히 일어섰다. 그러자 교회와 나라와 세상이 달라졌다. 그 청년은 마틴 루터다.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던 당시 교황과 로마가톨릭에 항거해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은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는 개신교 탄생의 초석이 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업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라틴어성경을 독일어성경으로 번역했고, 훗날 루터의 개혁정신을 이어받은 개혁교회가 독일의 통일을 이끌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프라하, 백조(루터)를 예언한 거위(후스)의 도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

“교황에게는 교황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나 교회법에 의해 부과된 형벌 외에 다른 형벌들을 면제해 줄 권세나 의지가 없다(반박문 5조).”

1517년 10월 31일 새벽, 독일의 작은 시골마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격문이 내걸렸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러나 루터보다 98년 앞서 종교개혁을 외친 이가 있다. 1415년 7월 6일 독일 남부 콘스탄츠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이 자가 이단의 두목이다(Hic est heresiarcha)’라고 쓰인 고깔모자를 쓴 남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화형 당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백년 뒤 백조(루터)의 탄생을 예언하고 화형당한 거위는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다. 루터보다 100년 앞서 로마가톨릭과 교황의 불의에 항거했던 비운의 인물이다. 그의 활동 거점이었던 체코 프라하는 ‘유럽의 심장’, ‘황금의 도시’, ‘백탑의 도시’, ‘카프카를 사로잡은 마력의 도시’ 등 수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 도시 자체가 거대한 예술품 같아 아무데서나 사진을 찍어도 그림엽서가 만들어지는 낭만 가득한 곳이다.

얀 후스는 당시 지식인과 성직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었던 라틴어가 아니라 일반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체코어로 설교하고, 면죄부를 파는 로마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의 부당함을 알렸다. “진리의 유일무이한 원천은 성서에 있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그는 1415년 7월 6일 소집된 콘스탄츠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바로 그날 화형 당했다.

체코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에 얀 후스의 동상이 있다. 그가 설교했던 틈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얀 후스의 굴곡진 얼굴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세월의 고뇌와 신앙의 묵직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동상은 진짜 얀 후스의 얼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사진이나 자화상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생김새를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체코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성자다운 얼굴을 표현했다. 동상 아래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적혀 있다.

‘루터의 도시’라고 불리는 비텐베르크는 독일의 작은 시골마을이다. 루터의 도시답게 대부분의 상점들이 루터로 가득했다. 마틴 루터는 이 작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성 베드로 대성당’ 공사에 막대한 돈이 들자 당시 로마가톨릭교회는 판매책까지 동원해서 면죄부를 팔았다. 비텐베르크가 속해 있는 독일 작센 주도 예외가 아니었다. 면죄부 판매책 요한 테첼은 ‘하늘 문이 열리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했다.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이다. 오라. 이 면죄부가 사하지 못할 큰 죄는 없다. 산 자의 죄뿐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다.”

민중들은 요한 테첼의 연변에 감쪽같이 속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교회는 민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라틴어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사제들의 말이 곧 진리인 줄 알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오직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고 가르치던 마틴 루터는 요한 테첼의 설교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95개 조항에 달하는 면죄부 비판서를 붙이게 되었다.

“만약 교황이 면죄부 설교자들의 강매 행위를 안다면 자기 양의 가죽과 살과 뼈로써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느니 차라리 그 성당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50조). 오늘날 교황의 수입은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부자의 수입보다도 많은데 왜 교황은 가난한 신자들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 같은 성당 하나를 세우지 않는가?(86조).”

34세 청년이 황제보다 더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교황에게 던진 외침이었다. 마틴 루터의 개혁정신이 담긴 반박문은 인쇄술 보급과 맞물려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졌고, 한 달 만에 유럽 전체로 퍼져 나갔다.



▲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비텐베르크 성교회.



▲ 바르트부르크 성

비텐베르크는 루터의 도시답게 종교개혁과 관련된 유적이 많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비텐베르크 성교회, 루터의 절친한 동역자 멜란히톤의 집, 루터가 신학을 가르쳤던 비텐베르크 대학(현재 마틴루터대학 할레 비텐베르크), 루터의 가족과 그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했던 루터하우스, “멧돼지(루터)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밭을 짓밟고 있다”는 교황 레오 10세의 파문교서를 불태운 참나무 등이 당시 일들을 증언해주고 있다.

바르트부르크 성, 독일어성경 세상 밖으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찬 585장).

1521년 4월, 루터는 이 찬송을 부르며 보름스에 도착했다. 보름스 제국회의에 출두하기 위해서였다. 마틴 루터를 압박하는 성직자들과 황제 카를 5세 앞에 선 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진리를 따르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라며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루터는 이단자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작센의 선제후 프레드리히 3세가 루터를 아이제나흐의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켰다.

바르트부르크 성은 해발 400m 높이에 있다.

철옹성이 따로 없다. 루터를 피난시키기에 그 곳보다 좋은 장소는 없었다. 마틴 루터는 이 성에서 ‘웅터 외르크’라는 가명을 쓰고, 머리와 수염을 길러 변장한 채 10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 그 시간 동안 라틴어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어느 누구와도 교류할 수 없는 고독과 싸우면서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겠다는 열정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독일어성경이 세상에 나왔다. 독일어성경은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물했다.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진리의 자유를 선사했다.

마틴 루터가 독일어성경을 번역한 방은 외진 고성(古城) 끝자락에 있다. 집이라고 해봐야 책상과 의자, 벽난로가 고작이지만 영적 고난과 싸우면서 성경을 번역한 당시의 치열함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다.

루터의 처음과 끝, 아이슬레벤

루터의 용기와 치열함은 아이슬레벤에서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는다. 아이슬레벤은 루터가 태어났고, 생애 마지막 설교를 했으며, 눈을 감은 곳이다.

1546년 1월 31일에서 2월 15일 사이 루터는 아이슬레벤 ‘성 안드레아스 교회’에서 네 번

설교했다. 당시 이 지역 영주였던 만스펠트 백작의 영토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고향에 들렀는데 이미 그의 몸은 노쇠해 있었다. 마태복음 11장을 본문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던 마틴 루터는 “복음에 관해 훨씬 더 많은 말을 해야 겠지만 내가 너무도 연약하여 여기서 이만 맺고자 한다”며 강대상을 내려왔다. 그리고 사흘 뒤인 2월 18일 성 안드레아스 교회가 보이는 집에서 눈을 감았다.

루터의 장례식에서 그의 동역자였던 멜란히톤은 다음과 같은 조사(弔詞)를 낭독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해준 5명이 있는데 이사야, 세레 요한,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루터다.”

루터는 죽고 없지만 그의 외침과 개혁정신은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다. 루터의 용기는 교회와 나라,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 농장 하나를 팔아야 살 수 있을 만큼 비싸고, 사 봐야 읽지도 못하는 라틴어성경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해서 널리 보급하면서 가톨릭교회의 횡포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진리의 자유를 선사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개신교회가 탄생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루터의 개혁신앙을 지지하는 교회는 훗날 독일 통일을 이루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



▲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다. 현재는 청동문으로 되어 있다.



▲ 비텐베르크 성교회안에 루터의 무덤이 있다.



▲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 있는 루터의 방.



▲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간 온누리 리더십 비전트립팀.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이야기

회가 있다. 이 교회는 1165년 세워졌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이다. 1539년 라이프치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가장 먼저 개혁신앙을 따르는 결단력을 보여준 교회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450년 뒤인 19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가 또 한 번 역사의 중심에 섰다. 성 니콜라이 교회는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독일의 평화를 위한 월요기도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성직자와 청년들이 주축이 된 소규모 기도모임이었는데 모임과 자유를 통제하고 탄압하던 동독 정부의 체제에 반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회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이 교회와 기

도모임이 동독 주민들에게 일종의 해방구가 되었던 셈이다. 1989년 10월 9일, 7만여 명의 시민들이 월요기도회를 마치고 동독 정부의 통제와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인민이다, 폭력반대, 자유선거”를 외쳤다. 평화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만 갔다. 10월 23일 20만 명, 11월 6일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평화시위에 참여했다.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를 중심으로 퍼진 시위의 불길은 동독 전역으로 번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 루터의 개혁신앙을 이어받은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모임과 평화시위가 독일 통일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라이프치히는 바흐, 멘델스존, 슈만 등 독일을 대표하는 음악가들이 꽃을 피운 지역으로 유명하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황을 대신한 요한 에크와 루터가 면죄부를 두고 뜨거운 설전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라이프치히 시내 중심에 성 니콜라이 교

특별기고

밥상공동체를 회복하자!

성경적 원리의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는 첫걸음

오늘날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의 다툼도 늘고 있다. 청년들은 결혼하면 손해라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피하기까지 한다.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 무자녀 가족과 1인 가족 증가 등 가정의 안정적인 기반이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김현실 목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예수님의 ‘밥상공동체’를 제시했다. / 편집자 주



김현실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혼밥’(혼자먹는 밥)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오늘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 현대사회에서는 밥상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밥상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정의 건강은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상호교류하고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밥상은 가족 간의 만남과 교육의 장이며,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최적의 장소다. 밥상공동체 회복은 오늘날 여러 가지 병폐로 망든 현대사회를 치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기독교 가정 교육 또한 말씀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이뤄 성경적인 가정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밥상공동체

밥상공동체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마련해 주신 장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던 유월절에 하나님께서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들에게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왜 이런 음식을 먹어야 했는지를 가르치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신실하심을 고백했다. 이러한 밥상공동체를 통해 하루 분량과 안식일을 위하여 이를 먹을 분량을 준비해야 하는 절제와 순종을 교육받았다.

성경 속 밥상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교육의 장이다. 세리들과 죄인들, 병자와 장애인,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는 공동체였다. 오병이여의 기적이 일어난 밥상공동체는 헌신과 나눔이 있었고,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는 자리였다. 나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리이자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모였던 자리였으며, 배고픔이 해결되는 회복의 자리였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생선을 굽고 직접 마련하신 밥상이 나온다. 이 밥상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물



밥상의 회복을 통해 사명이 회복되고, 선교가 일어나며, 신앙의 세대가 일어난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자리였고, 배신한 제자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회복한 자리였으며,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부여 받는 자리였다. 이러한 밥상공동체 경험은 초대교회에서도 밥상공동체를 이루게 했다. 성경은 밥상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밥상공동체부터 가족 모임까지

밥상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관 앞에서 환대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현관은 가족들의 환대를 받으며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수용되는 사랑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다. 환대로 인한 마음의 회복은 자연스럽게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자리로 이어지게 된다.

밥상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해석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밥상에서는 차려진 음식이 “맛있다”는 말과 함께 대화가 시작된다. 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나누며, 서로 나누는 이야기에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여야 한다.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식사 후 정리하는 과정에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좋다.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자녀들에게 일을 진행하는 순서와 음식이 완성되기까지의 기다림을 배우게 하며, 밥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돕고 어려운 일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섬기고 아끼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밥상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가족 모임

으로 확대해서 세대 간 교육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생일, 기념일, 출산, 결혼, 장례 등 가족을 축하하고 위로하는 다양한 가족모임이 있다. 가족 간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도 확인하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세대 간 교육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가족모임을 통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섬기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란다. 이것은 신앙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밥상공동체 회복을 위한 부모의 역할

밥상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회복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부모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꾸준히 행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분별하고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자녀는 어떤 기질인지를 살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지지해줘야 한다. 넷째, 밥상공동체 회복의지를 갖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지루함과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루

터는 부모를 하나님께 자녀교육을 위탁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Stellvertreter)로 보았다. 따라서 밥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르심의 자리요, 소명의 자리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몸의 양식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영의 말씀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또한 밥상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회복된 밥상을 통해 열매 맺는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일 기회가 별로 없는 오늘날 가정은 기독교 교육의 장으로 되살리기 매우 어려운 장소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시 127:1).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세워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가정의 모습을 “네 안방에 있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시 128:3)라고 말씀하셨다. 밥상을 중심으로 오순도순 둘러앉아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이 밥상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게 된다. 이렇듯 성경에서 보여주는 밥상공동체는 가정에서 식사를 하면서 절기를 기념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교육의 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밥상공동체의 회복은 세대 간 회복의 수단이며, 신앙의 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통로임을 알 수 있다. 밥상의 회복을 통해 사명이 회복되고, 선교가 일어나며, 신앙의 세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밥상을 예배의 자리로,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해석하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동참하며, 매일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함께 지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밥상공동체의 회복은 성경적 원리의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최정주 권사의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미술가로 불리는 앙리 마티스는 말년에 십이지장암으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지자 붓 대신 가위를 들기로 했다. “가위는 붓보다 더 감각적이다”고 말한 마티스는 다양한 컷아웃(종이 오리기)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에게 ‘아수파’라는 이름을 갖게 한 젊은 시절의 회화들 못지않게 그의 컷아웃 작품들은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원색의 화려함과 경쾌한 단순성으로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해 낸 그의 작품 ‘왕의 슬픔’에 표현된 인물은 렘브란트가 1656년 그린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이다. 작품 속에서 수금을 켜는 이는 다윗 왕이기도 하고, 마티스 자신이기도 하다.

여섯 개의 노란 꽃이 피어있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다윗 왕은 실제로 수금 연주가 매우 뛰어나 사울 왕의 광기마저 다스릴 정도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검은 옷의 웅크린 모습은 건강 악화로 휠체어에서 컷아웃 작품을 했던 마티스의 마지막 자화상이다. 궁중 악사는 노란색 탬버린을 품에 안고 두 팔을 흔들며 신나게 연주하고, 다윗 왕이 바라보고 있는 무희는 아름다운 춤사위를 보이고 있다. ‘왕의 슬픔’은 화려한 색채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지만, 묘하게 마냥 즐거운 기분만 들지는 않는다. 밝은 빛깔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슬픈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다윗 왕은 부하인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를 빼앗기 위해 그를 죽임으로 내몰았다. 그 죄로 인해 다윗 왕은 자신의 첫 아들을 병으로 잃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된다. 이에 다윗 왕은 절망에 빠져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음식조차

거부한 채 상심했다.

마티스는 다윗 왕의 이런 모습에서 노쇠하고 병들어 붓을 들 힘조차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것을 털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함이었다.

마티스도 다윗 왕과 같은 심정이었던 것은



아닐까. 붓을 들 힘조차 없이 늘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돌이킬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방법으로 예술혼을 불태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런 마티스의 모습은 노란 꽃잎을 노란빛 눈물처럼 사방으로 흩뿌리며 수금을 켜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과 닮아있다.

이 그림과 함께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를 들어보자. 이 곡은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인 헨델의 ‘리날도’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아리아다. 영화 ‘파리텔리’에 나오는

거세한 남성 성악가 카스트라토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곡이다. 이 곡의 간절한 가사를 생각하며 들어본다면 그 감동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슬픈 가사로 이루어진 서정적인 선율이 아들을 잃은 다윗 왕의 슬픈 마음을 노래하는 것만 같다. 한 음 한 음 짚어가며 부르는 듯 한 이 선율은 마치 서서히 스며들 듯 그림 속으로 들어가 다윗 왕이 흩뿌리는 노란빛 눈물로 변하는 듯하다.

명확하면서도 슬픔을 가득 머금은 아리아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마티스도 ‘왕의 슬픔’ 속 노란빛 눈물을 붙이면서 슬픔 가득한 심정으로 한 점 한 점 작업하지 않았을까? 이렇듯 마티스의 슬픔을 담은 노란빛 눈물은 화폭을 가득 채우며 또 그림 밖으로 흘러넘쳐 우리의 마음속에 젖어드는 것만 같다. 노래로 슬픔을 듣고 또 그림으로 슬픔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고여 있던 슬픔이 차고 넘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면

마음속에 감동이 채워지는 것처럼.

다윗 왕은 살인과 간통 같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큰 죄들을 저질렀다.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그 죄를 지적받고 나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결국 아들을 잃는 찢값을 치렀다. 그 과정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찢값을 한 치의 의문도 없이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줬다. 이 부분을 접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리 내가 지은 찢값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잃는 것과 같은 엄청난 시련을 과연 다윗 왕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시련과 슬픔, 그 모든 희로애락을 감사함으로 겸허하게 받아야 한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눈앞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죄의 결과가 눈앞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것이 우리 삶의 발목을 잡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뼈를 깎는 회개로써 죄를 인식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이 ‘왕의 슬픔’에서와 같이 노란 꽃잎들로 승화시켜 주

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 다윗의 슬픔이, 마티스의 절망이, 그리고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화되어서 온전히 은혜의 자리에 서는 삶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최정주 권사(한국예술융합교육학회 회장)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전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과일이 무엇일까요?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영국 속담이 나올 정도로 인간에게 가장 친근하고도 고마운 과일은 다름 아닌 사과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라와 아테나, 아프로디테라는 세 여신의 질투와 탐심을 일으켜서 결국 트로이 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도 황금으로 된 사과였어요. 독재 권력을 거부하고 약소국 독립 운동에 도화선이 된 빌헬름 텔의 화살도 그의 아들 머리 위에 올려 놓았던 사과 없이는 불가능했을 테지요.

땅과 하늘, 두 개의 세계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당시에 피사의 사탑에서 물체를 낙하시켜 시간을 계산했던 갈릴레이와 케플러에 의해 밝혀진 행성의 운동이 결국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밝힌 것도 뉴턴의 사과였어요. “왕비님도 아름답시지만,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라고 답변한 거울 때문에 이성을 상실한 왕비가 독살용으로 선택한 것도 사과였어요. 제1, 2, 3차 산업혁명을 거쳐 지금의 4차 혁명을 견인한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애플(Apple Inc.)의 상징도 한 입 베어 문 사과예요.

그런데 여처구니없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사과로 아담과 하와와 사과를 꼽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 사과가 아니라 ‘선악과’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 과일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고 편의상 ‘선악과(善惡果)’라고 부를 뿐이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창 2:17).

우리 친구들과부터 끊임없이 받는 질문 중에 꼭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도 동산 한 가운데다 놓고 인간이 따먹나 안 따먹나 헛을 쳐놓고 숨어 보는 신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결국 인간을 타락시킨 장본인은 하나님 당신 아닌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 성경은 살포시 품고 있는 선악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모든 관계에는 규칙이 존재해요. 갓 입대한 이등병이 부대장에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복잡하고도 준엄한 규칙들을 거쳐야만 해요.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자신을 답답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이 규칙 때문에 년털머리가 난다고 하던데 정말 규칙이 나쁜 건가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유지하는 것은 교통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학교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학교 규칙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에덴동산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너무나 간단하고도 유일한 규칙이 딱 하나 있었는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규칙이었어요. 그 규칙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보장되어요. 인간을 언제나 이해하고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시겠다는 선언이자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규칙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규칙과 그에 따르는 처벌에만 주목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 욕구인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킬 최고의 선물로 이미 각종 나무를 에덴동산에 완벽히 구비해 놓으셨어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신거지요(창 2:9).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freely)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창 2:16).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온갖 나무와 열매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원할 때 언제든지 먹고 또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선악과 규칙은 바로 인간에게 미리 부여하신 엄청난 자유에 바

탕을 둔 것이랍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인간에게 미리 허락하신 엄청난 규모의 선물과 너무나 미미하기 짝이 없는 유일한 한 규칙을요.

어떤 남학생이 너무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몇날 며칠을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고백까지 했다고 해봐요. 그 완벽한 여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좋아, 너와 사귄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다른 여자애들은 거들떠보면 안 돼.” 이 말을 들은 남학생이 “그건 말도 안 되지. 나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걸?” 이라고 한다면 이 남학생이 제 정신인가요?

사랑의 서약을 하고 온전히 한 가정이 되는 결혼 예식에서 신랑이 신부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결혼반지가 단순한 패물이 아니듯 선악과는 아담에게 행복의 약속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로보트로 우리를 프로그래밍하지 않으시고, 막강한 전지전능(全知全能)함으로 인간의 지성의(知情意)를 장악해 아버자로 전락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은 가장 단순하고 유일한 사랑의 증표로 선악과를 선물로 주신 것이예요.



곽상학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Point5공동체 통영



임지영 자매
(Point5공동체)

며칠 동안 앞치마만 두르고 있다가 오랜만에 화장하고 옷을 입니까 어색하다. 아마 Point5공동체 통영 아웃리치를 다녀온 다른 분들도 그럴 것이다.

아웃리치에 키친팀 팀장으로 섬긴 나는 여러 가지가 부족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지쳐있었다. 둘째, 요리보다 미식에 관심이 많았다. 셋째, 많은 것을 핑계 삼아 게으름을 즐기고 있었다. 이 모든 이유는 나의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내가 섬긴 Point5공동체 통영 아웃리치 키친팀은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세 끼와 두 번의 간식을 준비해야 했다.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인지 키친팀 사역 중간 중간에 ‘섬섬마귀’가 등장했다. 체력적으로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팀원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했다. 그래서 내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 팀이 되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키친팀을 섬기겠다고 지원해준 지체 한 명 한 명이 귀하고 감사했지만 낯선 얼굴들이어서 걱정이 많았다. 돌이켜 보면 작년 아웃리치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이지 않았나

싶다. 나의 우려와 달리 키친팀 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해해주고, 채워주는 성숙한 팀원들의 넓은 마음속에 나의 작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부족한 결정에도 잘 따라와 주고 지원해준 팀원들 덕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3박4일 동안 통영 아웃리치의 공간은 여기저기서 채워주신 사랑으로 차고 넘쳤다. 하나님께서 날씨, 물질, 사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채워주셨다. 날씨는 적당히 흐리고 맑아서 즐기면서 사역하기에 충분했고, 여기저기서 보내주신 자원이 많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했다.

아웃리치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많은 분들의 노력과 기도 덕분이다. 20년 동안 통영이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곳곳이 선교하고 계신 김용진 목사님과 김하은 사모님의 남모를 외로움과 수고에 정말 감사드린다.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동네 사람들의 협조가 없었을 것이고 아웃리치가 이렇게 수월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쁜 스케줄에도 먼 곳까지 오셔서 큰 힘이 되어 주신 정재륜 목사님과 손숙 목사님, 키친팀에 잠시 소속되어 열심히 미트볼을 만들어준 예지, 예윤이, 기도모임을 너무 은혜롭게 이끌어 주신 Becky 전도사님께 감사드린다. 말이 필요 없는 무한 에너지 임면 선교부장님과 든든한 서포터 승혜 부팀장님, 신주연 찬양팀장님, 어린 영혼들을 귀하게 섬겨주신 티칭팀,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채워준 지원팀에게도 감사하다.

통영에서 받은 은혜



3박4일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온 Point5공동체.

사하다.

세족식에서 우는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된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다. 여러모로 부족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미소로 응원해줘서 정말 큰 힘이 됐다. 어느 하나 엇나간 것 없는 톱니바퀴 같은 우리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세밀한 것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모든 일은 내가 하

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겠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게으름을 내려놓고 걱정들을 접을 수 있게 되었다. 지친 나의 영혼을 달래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 같은 마음과 체력이라면 2박3일을 더 불태울 수 있을 것 같다. 통영에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담아 또 다른 곳에서도 열심히 섬길 것이다.

양재 사랑부 캠프



변윤하 성도
(양재 사랑부)

나는 사랑부에 온 지 얼마 안 된 신입교사다. 일 년에 넘게 한국에서 지내는 유학생이기에 사랑부를 찾아오는 것이 망설여졌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장애아동을 섬기는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터라 용기를 냈다.

내가 처음 사랑부에 왔을 때 일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사랑부 아이들이 내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해주었다. 한 아이는 내 손에 입을 맞췄고, 나를 보고 방긋 웃어주는 아이도 있었다. 섬기러 간 내가 오히려 사랑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부 안에서 빛으셨다.

사랑부 캠프는 인천 베다니 하우스에서 2박3일 동안 진행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전해요, 함께 살아요’를 주제로 사랑부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눅 21:48)는 말씀처럼 사랑부 아이들은 자신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돌본 아이는 자폐증이 있는 여덟 살짜리 남자아이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처음이었다. 그 아이는 내 생각보다 씩씩했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말씀암송 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했다. 자신의 입술로 말씀을 겨우 고백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총무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 그때서야 정작 나는 말씀암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을 무사히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무의식 중에 예배와 말씀을 적당히 하려고 했던 것이다.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강요한 것은 아니었는지 걱정이 되었다.

캠프 마지막 날,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 2박3일 캠프동안 외운 말씀을 암송했다. 자신들이 외운 구절을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았다. 2박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동안 아이들에게 심겨진 말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마음을 회개했다.

교사인 내가 먼저 깨어있을 때 사랑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아이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품고 키우시리라고 기대한다.

사랑부 캠프에 다녀온 후에도 은혜가 계속되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마음속에 박혔고,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캠프에 다녀온 이후 나는 아이들을 더

천국을 그려내고 싶다



사랑부 지체들은 갯벌체험을 통해 조개도 캐고 머드팩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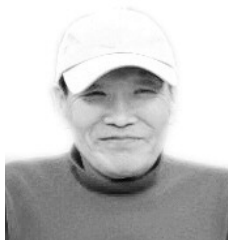
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어린 양처럼 순수한 그 아이들을 그릴 때마다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다.

나는 뉴욕의 아트스쿨에 다니면서 그림을 못그린다는 생각에 항상 좌절했다. 나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었다. 그런 내가 그리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다. 이토록 사랑스런 아이들의 얼굴에 천국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이번 캠프를 통해 깨달았

다.

이제 나는 아이들 안에 숨어있는 천국을 그려내고 싶다. 이번 캠프를 통해 큰 사랑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애아동을 향한 사랑과 시선을 가르쳐주셨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과 한없는 사랑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었다.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흘러 보내고 싶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날을 꿈꾼다.

마포공동체 평창



박종익 집사
(누가6순 순장)

올해 마포공동체 여름 아웃리치는 1다락방 1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산마루교회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산마루교회 노숙인을 비롯한 성도들과 연합집회 및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그렇게 마포공동체와 산마루교회가 함께하는 여름수련회가 강원도 평창 리조트 팰리스에서 1박2일 동안 실시됐다.

아웃리치 당일, 100여 명의 공동체 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목적지로 출발했다. 오후 12시경에는 수련회 현장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차가 많이 막히는 바람에 오후 1시쯤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을 비롯한 산마루교회 성도 30여명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눴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나서 이주연 목사님만 남고 산마루교회 성도들이 서울로 가야 했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마포공동체가 준비한 작은 선물만 전달했다.

산마루교회 성도들을 배웅하고 나서 손정훈 목사님께서 ‘관계를 변화시키는 19가지 기술’을 주제로 특강을 하셨다. 손 목사님은 “관계에는 아가페적인 헤세드 사랑과 나눔과 교제를 통한 코이노니아 사랑이 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좌뇌가 있으나 이는 관계에 치명적



마포공동체가 말씀으로 충만한 여름 수련회를 보냈다.

인 역할을 하므로 직관과 상상을 담당하는 우뇌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을 때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도 잘 이룰 수 있다고 하셨다.

저녁 식사 후에는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다.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이 목사님은 “현대사회에서 가정, 마을,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공동체를 화해와 용서가 그 안에 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정의하셨다. 그

러면서 “거룩한 영이 임하여 자신이 해체되고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고 권면하셨다.

진정한 기쁨과 소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진정한 기쁨은 “경쟁자를 이기는 것보다 약자를 도울 때 느끼는 것”이고, 소명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셨다.

다음 날 새벽에는 새소리와 함께 잠에서 깬다. 개인별 혹은 함께 숙박한 그룹단위로 QT를 하고, 여유롭게 산책을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일예배에서는 찬양팀의 특별찬양이 이어

졌다. 마치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았다.

주일예배 설교는 손정훈 목사님이 ‘용기 있는 사람’을 주제로 하셨다. 손 목사님은 “본이 되는 멘토가 1명 정도는 꼭 있어야 하며, 두려움을 심어주는 마귀에게 돌파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권면하셨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채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를 섬겨준 공동체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요셉공동체 홍천



김수현 팀장
(요셉공동체)

요셉공동체는 강원도 홍천 화랑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다. 그 덕분에 아웃리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수놓아주셨다. 강원도 홍천 화랑교회에서 만난 선한 사람들의 사랑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린다.

강원도 홍천 화랑교회는 군부대에 위치한 교회다.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에 머무는 시기가 1~2년 남짓이다. 그렇다 보니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 힘들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군중병들도 영적으로 갈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기보다 은혜의 통로인 군중병들과 어린이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군중병들이 영적 지도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테니 너희들은 가장 귀중한 것, 그 향유욕함을 깨뜨려주겠니?”라고 자상하

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자존심과 손익을 계산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향유욕함을 깨뜨려 각자의 귀중한 것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격려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세우셨다.

매력이 넘치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섬김의 마음을 가진 23명의 팀원들과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레 물걸레로 청소하는 팀원, 엉뚱한 부탁에도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따스한 눈빛으로 순종했던 팀원,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리더십의 식사를 걱정했던 팀원까지 모두가 정말 귀한 사람들이었다. 리더는 팀원을, 팀원은 리더를 아낌없이 챙겨준 덕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랑교회로 초대해주신 또 하나의 큰 이유는 군중병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친히 구분하신 군중병들은 이미 영적 지도자들이었다. 기도회 때 군중병들은 맑은 눈빛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아끼 새처럼 구슬프게 울면서 “주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나의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가슴이 아팠다. 하나님께서도 무릎 꿇고 어깨를 떨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군중병들을 보면서 가슴아픈 동시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았다.

강원도 홍천 화랑교회 아웃리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가장 큰 잔치는 ‘군중블레싱



요셉공동체가 군중병들과 함께 화랑교회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다.

’이었다. 90분 동안 2~3명의 소그룹이 교제하면서 서로의 생활을 나누었다. 군생활의 괴로움을 털어놓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위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군중병의 나눔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였다.

그 군중병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다 큰 군종과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었다. 그 순간 군중병들을 영적지도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제목이 떠올라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이미 그들은 영적 지도자로 굳건히 세워져 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공급이 군중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왔다. 이제 받은 사랑을 교

회와 가정과 직장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것은 우리 몫이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먼저 가서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신 잔치였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과 교제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한다. 내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아웃리치의 정의다.

아웃리치의 정의

주차사역팀 남아시아M국



강영희 총무
(영등포구로공동체)

청년 시절부터 약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모태 신앙이었던 아내 덕분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오직 주일뿐이었다.

내가 삶의 주인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매주 욕설 아닌 욕설을 들으면서도 꾸준히 봉사하는 팀원들을 보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렇게 약 7년 동안 주차봉사를 섬기고 있다. 오랜 주차봉사는 나에게 해외 아웃리치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사업차 해외는 많이 오갔지만 아웃리치에 임하는 나의 마음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다.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긴 시간동안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 부담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가기 전부터 많은 염려와 걱정이 몰려왔다. 실제로 아웃리치 출발 일주일 전 회사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아내와 목사님은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으니 기도와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자고 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다녀오자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주차사역팀이 현지인들 집에 장판을 깔아주고, 기도해주고 있다.

8월 7일, 한국을 출발해서 약 7시간여 만에 남아시아M국 수도에 도착했다. 공항에 마중나오신 선교사님을 뵈 수 있었다. 선교사님은 긴 비행으로 지친 우리가 쉬 수 있도록 숙소로 안내해 주셨다. 숙소로 가는 길이 너무 낮설고 자욱한 먼지와 냄새 때문에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팠다. 숙소로 도착해서 예배를 드린 뒤에야 평안한 마음으로 취침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6시, G마을로 향했다. 거리도 멀고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하던 차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1차선인 비포장도로에서 우리 앞차가 철근을 신고 가다가 진흙에 빠졌다. 그 차도 우리 차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트랙터를 빌려 다시 짐을 옮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겨 신고 출발했다. 약 10시간여 만에 G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G마을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우리를 기쁘게 반겨주셨다. G마을에 지어진 교회는 너무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라는 찬양이 절로 나왔다.

우리는 G마을 교회에서 장판을 준비해서 현지인들의 집에 깔아주었다. 목사님과 함께 가정을 위한 축복기도도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꼈고, 바쁜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에는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늘의 천사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모

르게 눈물이 났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렸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지친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박6일 일정은 너무 빨리 지나갔다. 다시 선교의 꿈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주차사역팀은 남아시아M국 아웃리치에 이어 9월 23일 평택 고령교회 아웃리치를 간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서빙고, 가정사역공동체 연합 남아시아M국



백종국 성도
(가정사역공동체)

서빙고공동체와 가정사역공동체가 남아시아M국 연합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서빙고공동체는 의료진을, 가정사역공동체는 어린이사역과 약제팀을 중심으로 총 42명이 꾸려졌다.

이번 아웃리치의 주요 사역은 D지역과 B지역에서 의료 및 어린이 사역, W청소년공동체 방문 및 주일 연합예배, 흠케어 사역(거동이 어려운 환자 가정 방문 진료 및 중보기도) 등이었다.

남아시아M국 아웃리치는 10년 전 내가 대학 청년부 시절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지역적인 부담감은 크지 않았다.

이번 아웃리치는 아내와 초등학교 저학년인 두 딸과 함께 참석하는 첫번째 해외 아웃리치였다. 의미가 깊었다. 다만 아이들이 짜증 안 내고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모든 것은 기우(杞憂)였다. 두 딸을 포함한 11명의 어린이들은 몇 마디 문장과 몸짓, 눈치로 현지 아이들과 허물없이 지냈다. 페이스페인팅, 팔찌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을 하면서 어른들보다 더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웃리치 3일차 사역지인 B지역으로 가는데 비포장도로였다. 자칫하면 버스가 뒤집힐 정도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 어른들은 어지럼증과 허리 통증을 호소할 정도로 힘들어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달랐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고, 4D체험을 하는 것 같으며 2시간 내내 신이 나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칭찬하신 어린이와 같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녀와 함께 아웃리치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후시라도 어린 자녀가 있어 아웃리치를 주저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아이들과 함께 가시기를 적극 추천한다. 아이들을 통해 받는 은혜가 더 크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나는 작은 예수님을 참 많이 만났다. 찜통같이 무더운 날씨에 바람 하나 통하지 않는 진료실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환자 530여 명을 정성껏 치료하신 7개과 11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주인공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점심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일한 약제팀, 따가운 햇볕 아래서 수백 명의 현지 아이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위식을 한 가정사역공동체 지체들과 아이들, 대상포진에 걸릴 정도로 건강이 안 좋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을 동행하신 선교

모두가 작은 예수님



남아시아M국에서 만난 작은 예수님들.

사님과 그 가족들, 자신의 부를 포기하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남아시아M국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작은 예수님이었다. 이곳은 공식적인 전도가 금지된 나라지만 작은 예수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L족 자치교회가 하루 속히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우리 가족은 아웃리치 4일차 흠케어사역에 동참해서 현지 5가정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만난 A자매가 기억에 남는다. A자매는 견지 못하는 24살 아들을 둔 엄마였다. 아내가 무릎을 꿇고 A자매의 손을 잡고 한국어로 기도하는데 A자매가 눈물을 펄펄 쏟았다. 한 번 터진 A자매의 눈물샘은 한동안 마르지 않았다. 아

내도 눈물범벅, 땀범벅이 되었고 A자매와 진한 포옹을 하며 기도와 축복의 말을 이어갔다. 비록 종교가 다르고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개입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일어나 걷게 하는 치유의 능력을 베푸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그리고 영혼 구원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을 믿고 감사드렸다.

남아시아M국이 악한 영으로부터 하루 빨리 독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동역한 모든 팀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양재 초등1부 예산



조미나 교사
(양재 초등1부)

초등부 전도사님으로부터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나는 어린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팀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전도사님, 코치님, 교사 11명과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13명이 함께 준비했다. 2박3일 동안 진행될 이번 아웃리치의 주요 사역은 여름성경학교와 전도활동이었다. 첫째 날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도팔찌를 채워드리고 복음을 전했다. 둘째 날부터는 충남 예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했다. 마지막 날에는 코스를 돌아다니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양육하고 다스리며 충만하라’는 내용으로 대그룹 활동을 했다.

이번 아웃리치 준비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아웃리치를 함께 가는 선생님들이 캠프에서 맡은 사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었다.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선생님들



여름성경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율동하고 있다.

덕분에 부족함 없이 아웃리치를 잘 마칠 수 있었다.

행복한교회 여전도회가 식사팀으로 섬겨주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여름성경학교 기간 동안 섬겨주셨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초등부 13명의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욱 좋았다. 일대일매칭을 통해 교사와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큐티를 하고 나누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초등부 친구들은 소그룹시간에 보조교사로 참여했다. 유치부부터 초등4학년 친구들을 도와주었다. 평소 소그룹시간에 떠돌던 한 친구는 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게 선생님과 어린이들을 도우면서 선생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에는 경로당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하여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했다. 어르신들께 전도팔찌를 채워드리면서 복음도 전했다.

아웃리치 첫날 우리가 가정방문을 했을 때에는 도망가거나 선생님을 쳐다보기만 하던 어린이들도 경로당을 함께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전도팔찌를 채워드리고 복음도 전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는지 모른다.

감사한 소식도 이어졌다. 첫째 날 아파트에서 만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5명이 여름성경 학교에 왔다. 주일예배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정말 기뻐했다. 소그룹시간에 만난 은서라는 친구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다가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계기로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8).

하나님의 은혜로 예산 아웃리치를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었다. 더운 날씨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SNS공동체 제주



유준상 형제
(SNS공동체)

하나님께서 카운트다운 집회와 수련회로 채워진 은혜를 열방으로 흘려보내라며 나를 제주 아웃리치팀으로 부르셨다.

제주 아웃리치는 SNS공동체 아웃리치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70명이 넘는 인원이 제주 즐거운교회, 가나의집, 덕천교회로 흠뻑했다.

즐거운교회팀은 소외계층 축호사역, 보수사역, 중국인, 조선족, 탈북민을 위한 전도집회를 진행했다. 어느 80대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는데 쥐똥과 죽은 바퀴벌레가 가득했다. 옷가지와 집 내벽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그 상황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한 힘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아웃리치팀이 세상의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섬길 수는 있었다. 사역을 마치고 나서 팀원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단순히 집이 깨끗해졌기 때문만이 아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사용되었다는 데서 느끼는 감동이었다. 하나님은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이루고 계셨다.

중국인, 조선족, 탈북민을 위한 전도집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셨다. 전도대

상자들은 삶에 대한 고민, 절대자를 향한 갈망으로 마음이 열려 있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전도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집회에 초대했다. 전도집회를 마치고 나서 몇몇 지체들이 즐거운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가나의집과 덕천교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가나의집을 섬긴 아웃리치팀은 주차선 그리기, 운동장 우레탄에 페인트칠하기, 돌길 만들기 등의 보수작업을 했다. 페인트 작업은 더운 날씨에 외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날씨를 간구하는 중보기도를 많이 했다. 비가 내린다는 예보를 들으면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다행히 사역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비가 멈춰서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운동장 우레탄에 페인트칠하기는 땅이 마르지 않아 새벽에 작업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일기예보가 바뀌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린다고 했다. 가나의집을 섬긴 아웃리치팀은 일정을 바꿔서 야간작업을 했다.

새벽 5시경 빗소리에 눈을 뗐는데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렸다. 다행히 그 비가 오전에 그쳐서 오후부터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아웃리치 기간 내내 맑은 날씨를 주시지 않았지만 준비한 사역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 했

하나님의 눈물



축호 보수사역을 진행하는 즐거운교회 팀원들.

다. 사역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었다.

덕천교회팀은 축호전도와 교회 보수, 벽화그리기 사역을 했다. 제주도의 복음화율은 10%인데 육지 유입 인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5%에 불과하다고 한다. 역사에서 비롯된 아픔과 상처,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때문이다. 전도하면서 이러한 실태를 여실히 실감할 수 있었다. 전도지를 건네기도 전에 퇴짜맞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으신 몇몇 집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 홀로 사시는 한 할머니에게 영접기도를 해드리는 순간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은 나의 눈물이 아니었다.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울고 계셨다.

계획이 틀어지기도 했지만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었음을 고백한다. 제주 아웃리치팀이 받은 은혜를 이 짧은 글에 모두 담을 수 없어 아쉽다. 하나님께서는 제주도를 사랑하시고 그곳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예수제자학교(JDS) '제자의 날'

수강생 및 간사 485명 전도여행 다녀와

예수제자학교(JDS)가 지난 18일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제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예수제자학교 제자의 날 행사는 백흥기 장로의 대표기도, 수강생과 JDS 간사들의 특순, 아웃리치 간증 발표, 박종길 목사의 설교, 중보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박 목사는 '특별한 보물'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완주하자"고 권면했다.

올 여름 예수제자학교(JDS)에서는 수강생 326명과 간사 159명이

15개국 29개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다녀왔다. JDS 간사들은 리브소나타 동경에 참석했다. 예수제자학교 수강생들이 전도여행을 가장 많이 간 곳은 몽골이었으며, 가장 많이 한 사역은 어린이사역이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 간증

세 가지 깨달음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해오던 나를 남아시아국으로 보내셨다. 선교를 외면하던 내 눈을 뜨게 하였고, 메말랐던 내 마음에 무슬림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세 가지를 느꼈다.

첫째, 무슬림은 편견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내가 생각

하는 무슬림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선교사님을 통해 만난 무슬림은 지극히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내게 무슬림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요구하셨다. 둘째, 무슬림을 변화시키는 것은 변증이 아니라 사랑이다.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이 무슬림을 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스스로

깨닫도록 돕고 있었다. 셋째, 예수님은 무슬림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셨다. 복음을 믿는 소수의 무슬림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그들도 살 것이다.

나는 남아시아국 셀터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로 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무슬림과 이슬람을 더 이해하고자 한다. 따뜻하게 대하고자 한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한다. / 조대근 성도(수원 JDS 13기)

와이미션(Why Mission?) 개강

선교훈련학교 와이미션(Why Mission?)이 서빙고와 남양주에서 개강한다. 서빙고는 9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한동홀, 남양주는 9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 소망홀에서 진행된다.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이나 당일에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와이미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선교, 구약성경과 선교, 신약성경과 선교, 세계선교역사의 현황, 한국선교 역사, 타문화 이해, 온누리선교 현황과 비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서빙고 02-3215-3644
남양주 031-565-9686

172기 서빙고 온누리순장학교 개강

172기 서빙고 순장학교가 개강한다. 9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주일 오후 4시 30분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면서 공동체 담당교역자에게 추천을 받은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있는 순장학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공동체 담당교역자에게 결재를 받고, 서빙고 목회행정실 최지완 간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순장학교는 온누리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본 영성 프로그램이다. 순 예배, 말씀에 근거한 삶 나눔, 순 식구 관리 및 모임 인도 방법 등 실제적인 순장의 역할을 가르쳐 준다. 문의: 02-3215-3220

8기 양재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 모집

8기 양재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9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8시 40분 강의동 305호에서 진행된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회비는 점심식사비를 포

함해 4만원이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는 복음의 핵심을 짧게 전할 수 있는 생활전도법을 알려준다. 김태용 목사, 장경문 장로, 이영혜 권사, 박인숙 권사 등이 강의한다.

문의: 010-9001-6243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수강생 모집

부부코칭 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빙고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길 원하는 40~50대 부부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

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원.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은 40~50대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고, 인생의 2막을 성경적 가정원리로 준비하도록 돕는 부부코칭 과정이다.

문의: 010-9041-5538

CGNTV '두근두근 마카롱' 서울 웹페스트 수상

베스트 스케치 코미디 부문

CGNTV가 제작한 미니시트콤 '두근두근 마카롱'이 지난 18일 국민대학교 뮤직홀에서 열린 '서울 웹페스트 2017'에서 베스트 스케치 코미디상을 받았다.

두근두근 마카롱은 '서울 웹페스트 2017' 대본상, 감독상, 앙상블 캐스트상, 스케치 코미디상 등 4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고, 국내 작품작 36개와 경쟁해 베스트 스케치 코미디 부문에서 수상했다.

'서울 웹페스트'는 전 세계에서 제작된 웹 콘텐츠들을 대상으로 하는 웹드라마 시상식이다. 두근두근 마카롱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미니

시트콤이다.

CGNTV는 지난해 '교회오빠의 연애QT'로 베스트 브랜드 시리즈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두근두근 마카롱으로 다시 한 번 입상하면서 기독교 콘텐츠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시즌제로 업로드 되는 미니시트콤 두근두근 마카롱은 오는 9월 시즌3를 선보일 계획이다. 9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총 4편이 공개된다.

CGNTV KNOCK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cgntv.knock)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김명선 기자

한동대학교 입학설명회

9월 1일 양재 기쁨홀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가 9월 1일 오후 7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한동대학교 입학설명회에서는 한동대학교 교수와 입학사정관들이 참석해 대학 소개와 입학전형에 대해 안내한다. 지난해 입시분석 자료와 2018~2019학년도 전형의 주요 사항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한동대학교 입학설명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수원, 대전, 전주, 울산, 청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 개최된다. 장소와 일정은 홈페이지(admissions.handongedu)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 제2회 정기공연

강동 사랑부 합창단이 제2회 정기공연을 한다. '동쪽 하늘 무지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9월 23일 오후 4시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에서 막 오른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꿈꾸지 않으면', '에델바이스' 등 총 8곡을 합창할 예정이다. 문의: 02-475-9686

성찬예식용 포도즙 제조

성찬예식용 포도즙을 제조한다. 서빙고는 9월 18~20일, 양재는 9월 13~14일 교회 식당에서 포도즙을 제조한다. 이 기간 동안 식당은 운영되지 않는다. 서빙고는 집사와 권

사 임직후보자, 양재는 권사회와 집사와 권사 임직후보자들이 봉사할 예정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268
양재 02-570-7396

서빙고	시간	시간
9월 18일	10:00~12:00	13:00~19:00
9월 19일	10:00~12:00	13:00~19:00

* 시간 선택 가능(일 8시간/2일간 16시간 인정)

양재	오전 10:00~15:00	오후 15:00~20:00
9월 13일	송파, 분당B, 산본안산, 안양평촌	강남A, 과천의왕, 분당A
9월 14일	강남B, 강남C, 강남D, 양재	서초A, 서초B, 서초C, 서초D

* 공동체별 참가

■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 박재영 목사(예랑교회)

가슴 벅차고 뭉클했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음성이라는 작은 읍내에 있는 예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재영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40명 정도입니다. 예랑교회는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늦깎이 목사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변변한 교회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서울 온누리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직장문제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새벽예배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소속이셨는데 온누리교회와 예랑교회를 아우리치라는 다리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온누리교회에서 아우리치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떨렸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지만 교회도 비좁고 준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4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배드리는 성도는 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이 아무리 규모를 축소해서 온다고 해도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강권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7월 동안의 여리고 기도와 21일 동안의 다니엘 기도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랑교회 성도 40명 전원이 예배에 참석하였고, 3~4명 드리던 새벽예배 인원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군의원님도 만나고 이장님을 만나서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15일, 공연시간이 다가오는데 충북지역에 큰 장마가 닥쳤습니다. 도로가 유실되고 산사태로 기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공연날 한여름에 가을 날씨를 주셨습니다. 커다란 버스가 교회 앞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버스에서 환하게 웃으며 내리는 한 분 한 분이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합창을 듣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빈자리 없이 앉으면 아주 좁게 100명이 앉을 수 있는데 그날은 그 좁은 곳에 250명이 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가슴이 벅차고 뭉클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동네에는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현수막과 홍보물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다시 오시면 날짜만 바꾸겠습니다. 온누리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버지학교 수료 간증



/ 김성웅(남북교회)

사랑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

“아버지학교 어때요?”
사랑하는 아내가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감동과 감격의 눈물로 시작해서 치유의 눈물로 끝나는 눈물의 파노라마더라고”

자존심 강하고 당당한 남자들 세계에서 눈물이 그렇게 과도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 명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었다. 각자 공동체 앞에 나와 진솔하게 자신의 잘못과 단점을 자백하고 회개했다. 눈물 흘리며 고백한 내용들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고, 깊이 생각하게 했다.

나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의 권유로 아버지학교에 들어왔다. 아버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에게에는 3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아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 신경질을 내고 짜증내고 화를 냈다. 둘째, 아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역시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내면서 사랑을 잘못 표현했다. 셋째, 배고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짜증내고 화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것들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아 온 것이 가슴 아팠다. 아버지학교에서 배우고, 익히고 보니 이것들이 다 존경하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었다. 동시에 나의 핏속에 죄가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죄를

뿌리 뽑기로 결단하고 쫓불에 태워 하나님께 맡겼다.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바고,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가끔씩 튀어나오는 잘못된 성격을 회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아버지학교의 모든 스태프들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고 있었다. 역시 사람은 밥과 공기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총 진행을 맡고 있는 한호성 형제의 예수님 같은 모습에서, 1조 조장인 한만석 형제의 따뜻하고 섬세하고 사랑스런 돌봄에서, 유니폼을 입은 모든 스태프들의 표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감사님들의 진솔하고 열정적이고 눈물겨운 강의도 좋았다.

아버지학교에 참여한 모든 형제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가까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결혼한 남자는 꼭 아버지학교를 이수해야 한다. 정말 사랑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로 인정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부대에서 온 편지

최민염 목사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교회)

필승! 해군대위 최민염 군종목사입니다. 온누리교회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올해 3월 온누리교회에서 장병위문예배를 섬기러 해군교육사교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온누리신문에 해군

선교에 관한 글이 실렸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무명으로 1천만 원을 해군교육사교회에 헌금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께서 무명으로 병사들을 위해 매일 <생명의 삶>을 15권씩 정기후원해주셨습니다. 7월에는 해군병 641기 세례식을 위해 방문하셔서 장병 1천 명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군교육사교회에 CCM찬양사역자 지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관람, 간식지원 등을 해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주시는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와 물질후원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밤을 지새우며 훈련병 1천 명에게 줄 팝콘을 튀기고, 포장하셨던 온누리교회 군선교팀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팝콘을 먹고 장병 한 명이라도 힘



해군교육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장병.

을 얻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말씀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사역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훈련병 중에 비신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혹시나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를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장병들은 훨씬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간식을 먹으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행복해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글귀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목사이자 군인으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덴만 해역으로 선교갑니다 도와주세요”

장병 한 영혼을 바라보며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영화를 관람한 단 한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귀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 근거리에 있는 부대를 방문해서 선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사역을 위해 경남 진해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셔서 이를 이상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올해만 6회, 내년에는 10회 이상 진해 해군교육사교회의 장병들을 위한 방문을 결심해주신 온누리교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

월 동안 청해부대 25진 군종참모로 파병을 명받았습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해적차단, 테러억제, 해양안보작전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늘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전투 현장입니다. 흔들리는 배안의 좁은 격실에서 생활하면서 장병들이 겪는 전투스트레스와 고통, 긴장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파병 기간 동안 장병들과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상담과 위문 활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파병 선교활동을 위해서 이미 온누리교회에서 비전성경 350권과 CGNTV의 영상들을 협조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해부대 25진 선교활동을 위해 함상예배 물품(이동형 스피커, 키보드, 기타, 마이크, 세례성찬기, 절기용품 등)과 신앙문고 조성(베스트, 신간 기록 도서), 장병 간식비(주일, 수요일예배, 야간위문, 상담, 교육) 지원이 절실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청해부대 25진의 건강과 안전, 임무완수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문의: 02-3215-3214, 010-5250-6036

바로 집습니다.
지난 주(8월 20일자) 신문 서빙과 워십라이프 간증 필자의 이름은 박미경이고, 대전 이혼자행복학교 아우리치 간증 필자의 소속이 가정사역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집습니다.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 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플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 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일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종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8~9

김포 엠센터 꿈방 예배 교사 모집

시간: 주일 11시

대상: 유치부~초등부 다문화 아이들

문의: 민경윤(010-2997-4347)

꿈아이를이터(꿈터) 29기 모집

기간: 9월 13일~11월 15일(10주)

시간: 수요일 10:40~12:40

문의: 김경희 코치(010-8877-3584)

꿈터 교사 모집

모집: 음향, 세팅, 찬양, 테코, 반주, 소그룹,

자료 제작 등

문의: 김혜영 전도사(010-3174-8107)

CGNTV 세라핌 합창단 모집

오디션: 9월 3일 주일2시, 자유곡1곡(악보

지참)

대상: 초등 2학년 이상

문의: 010-5226-7354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봉사 교사 모집

대상: 다문화 및 외국인 초중등생

모집: 한국어 교육, 쓰기, 읽기 지도 가능자

문의: 이경숙 전도사(010-5034-0092)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공고

모집: 양재 커피숍 직원, 서빙고 양식당 조

리원, 양재 한식당 조리원(1년 기간

제 계약직)

문의: 총무팀(02-3215-3102)

CMN라파티م 추석 아웃리치 모집

기간: 10월 1일~ 9일(마다가스카르)

모집: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문의: 심형섭(010-3227-9915)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를(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 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살롱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미니휴먼다큐 '내가 되고 싶은 나'

선천성 청각장애와 시야가 좁아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겪고 있는 구경선 작가
지름 8.8cm의 원 안에서만 보이는 그녀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녀가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한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9월 3일 KNOCK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한 영혼을 위한 CGNTV 모바일 콘텐츠 KNOCK

감동적인 이야기와 공감가는 에피소드로
젊은 세대와 넉크리스천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KNOCK 콘텐츠는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gntv.knock)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콜 <두근두근 마카롱>

2017 서울 웹페스트 '베스트 스케치 코미디' 수상작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솔직한 속마음을 담은
생활밀착형 공감 에피소드
누적조회수 200만부를 달성한
<두근두근 마카롱>이 시즌3로 찾아옵니다!

에피소드 별 업로드 일정

Ep.8 수상한 휴가 (9/9)

Ep.10 생방과실 총돌약관 (9/23)

Ep.9 무서운 이야기 [안무서움주의] (9/16)

Ep.11 곰신에서 꽃신까지 (9/30)

9월 17일,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5만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CGNTV